

朴대통령, 하반기 '민생 드라이브' 본격화

공식 일정 비운 채 국정 구상 돌입 대북 해법·국정원 사건 대응 주목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매주 월요일 오전 주재해은 수석비서관회의에 거르는 등 종일 공식 일정을 비운 채 하반기 국정 구상에 들어갔다.

이날은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면서 대북문제와 국내 정치, 경제 상황 등 국정 전반을 두루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숙제가 산재해 있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중국과 약간 다른 시각차를 드러낸 북핵 관련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 과제다. 대내적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 의혹과 관련,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며 장외집회에 나선 점이 쟁점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정치권의 다툼에서 멀리 떨어져서 '민생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민생 관련 법안들이 소모적인 정쟁 때문에 국회에 계류된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가급적 정쟁에 휘말리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이른바 G2를 잇따라 방문해 비핵화 등 북한이

슈와 관련해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이제는 경제와 민생을 국정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정을 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방중 직전인 지난 6월25일 상하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4개월 동안 국정

운영의 틀을 잡고 방향을 제시했다"며 "하반기에는 그동안 다져온 국정 틀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7월 첫째 주부터 중순까지 각종 경제 관련 정책 발표와 회의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주로 창조경제와 실용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발표를 통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첫째 주 연이은 정책

발표에 이어 9일 관공진흥정책회의를 거쳐 박근혜정부에서 두 번째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까지 촘촘히 일정이 짜여 있다.

이처럼 박근혜정부가 민생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배경은 정권 초반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보고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으며 정권 초반 시스템 안착이 어려웠지만 생각보다 빨리 박 대통령

의 국정 기초가 정부 부처에 스며들었다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쟁과 거리를 두고 민생에만 집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및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건과 관련, '정치공작 가담자와 배후자의 구속'을 촉구하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태세여서 청와대가 '침묵 기조'를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바마 "만델라 있던 곳, 겸허해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18년간 수감됐던 로벤섬을 찾아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명록에 "불의와 맞서고 굴복하기를 거부한 용감한 사람이 있던 자리에 서게 돼 매우 겸허한 심정을 느낀다"고 적었다.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만델라는 폐 감염증이 재발해 수도 프리토리아의 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달 23일 밤부터는 위독한 상태다.

北, 박대통령 방중 발언에 "도발적 망발" 비난

통일부 "실명비난 매우 유감"

북한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했던 대북 발언을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도발적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방중 기간에 "새로운 남북관계"나, '새로운 한반도'나 하면서 우리에게 대해 또다시 '변화' 타령을 했는데 변화야 할 것은 남조선 정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평통은 "우리의 핵은 어떤 경우

에도 흥분물이 될 수 없으며, 협상타의 거래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신뢰 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위험천만한 대결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월에 이어 오늘 또 북한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다"면서 "기본적으로 국가 원수에 대해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과 언사를 쓴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연말뉴스

공항·항만서 난민신청후 사전심사 가능

난민법 본격 시행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난민법이 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인 유엔의 '난민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일단 입국한 뒤 체류 지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했다. 난민신청자가 면접을 받을 때에는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인이나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다.

또 난민신청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정착지원을 위해 별도 설치된 난민지원시설 등을 통해 주거·의료도 지원된다.

난민심사결과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전문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에서 전담 난민조사관이 검토하게 된다.

난민지원시설은 총 사업비 133억 원을 들여 2011년 5월부터 인천 영종도에 부지 3만1143㎡(약 9437평), 연면적 6612㎡(약 2000평) 규모로 짓기 시작해 9월 완공된다.

연말뉴스

지방정가

조호권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해야"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은 1일 열린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또한 지방 SOC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방비 부담이 우려되는 지역현안에 대해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장은 "문화전당 운영주체 법인설립 입법예고나 국립광주과학관 운영비 지원비 40% 부담, 무상보육과 학교 무상 급식 확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이 더욱 압박받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봉근, 지역 먹을거리 육성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윤봉근(무·광산1) 의원은 1일 직거래장터 지원 등을 담은 '광주시 지역 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지역 먹을거리 생산 농업인이 참여하는 기획생산단지 조성이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생산자가 지역 먹을거리를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이를 위한 시



설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임대농과 유통업체가 많은 광주시는 제도화가 미흡하다"며 "공공시설이나 행사, 학교급식 등에 지역 먹을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연 "시교육청 비정규직 해고 비인간적"

전주연(통합진보·비례) 광주시의원은 1일 "광주시교육청이 4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방과 후 지원센터 직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비인간적"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업무편람'에 따라 지난 2009년 채용한 영어회화 전문강



사 120명에게 최근 계약해지 통지를 했다"며 "4년이나 된 강사가 비정규직 이란 이유로 해고된 것은 비인간적이며 반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학교급식 조리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질병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의 조리 작업장 개선을 촉구했다.

송경중 "수완지구에 시민운동장 조성을"

송경중 광주시의원은 1일 "광주 수완지구에 시민운동장을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의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인구 8만명이 거주하는 수완지구에 시민운동장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수완지구 조성 당시 시민운동장 조성 계획이 빠져



있는데도 도시계획을 통과시켜준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광주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운동장 조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삼희 공인중개사

모든 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법인소유물건

지분소유물건

미준공건물

경매중인물건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구)그랜드호텔 3층

(062) 234-1199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매매 전문

- ★북구 전대 상대·농대 1분, 신축 4층, 톨147개(주택있음) 월수익 500만, 매가 5억 9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톨 16개 (주택 40평)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4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톨 21개 (주택전환)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8천만 (엘리베이터,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서구 쌍촌동 운천역 2분, 신축 3층, 톨 87개(주택있음) 월수익 280만, 매가 5억 2천(보 2천, 용 1억 2천)
- ★서구 쌍촌동 신축 4층, 원·투룸 14개(주택있음) 매가 6억 9천만
- ★북구 삼각동 신축 4층, 원·투룸 11개 (주택있음) 코너, 최고 위치 월수익 330만 (보 2500만, 용 1억 2천) 매가 5억 5천만

상가매매

- ☆상가 임대 1층, 수원지구, 대방 5차 후문 59㎡ (보 3천, 월 130만) 모든업종가능
- ☆상가 임대 3층, 수원지구, 모아엘가APT 150㎡ (보 1천, 월 90만) 즉시입주, 시비없음
-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롯데마트, 영화관 300세대 대방 5차 APT 후문 59㎡ 매가 3억 6천, 임대중 (보 3천, 월 150만)
- ☆상가 매매 1층, 수원지구 신한은행 뒤 300세대 모아엘가 APT 후문 3층 280㎡ 매가 3억 2천 (보 2천만, 월 200만, 용 2억 5천만) 학원, 병원, 사무실적합
- ☆상가매매 1층 4칸, 수원지구 대방 1차 APT정문 대지 304㎡ 매가 6억 3천 (보 8천만, 월 360만, 용 2억 5천만)
-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대성베르텔 대지 304㎡ 매가 7억 (보 1억 3천만, 용 4억)

독서실 급매

수원지구 3천세대 모아엘가APT앞 2층, 총 91석 신축,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 5천만, 월 250만, 시비약간있음)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국민은행 .LG전자앞)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층,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에서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우러진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자재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9천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전원주택단지, 공장, 창고부지 등

나주시 송촌동 동산대 인근 2차순환도로 접 자연 녹지 전 16,200㎡ 매가 9억 8천만원 접근성리,투지적합

저렴한 전시판매장

주월동 상가 풍양지구 입구 대로변 코너 대지 512㎡ 건물560㎡ 매매가7억9천(기구, 전자, 자동차, 아웃도어 등)전시판매장 최적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임대·급매매

웨딩홀 상설뷔페

임대 2,824㎡ (854평)

주차 500대

보 2억 / 월 1,500만

매매가 15억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임대 2,479㎡ (750평)

주차 500대

보 2억/월 1,200만

매매가 10억

급매인수 11억

건물 5,700㎡ (1,740평)

보증금 4억 / 월 2,700만

감정가 78억

급매가 25억

용지역 14억

☎010-3605-7814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 5억 4천, 월 3500만 매 46억 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3층) 보 3억 원, 월 1200만 매 24억 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10층) 보 25억, 월 6500만 매 130억 원
- 광산구 수원지구 (5층) 보 2억 2천, 월 1390만 매 27억 원
- 광산구 신창동 (5층) 보 2억, 월 1040만 매 19억 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 접 자연녹지 3,400㎡ 매 32억 원 (병원, 차고지, 대형가든, 장례 예식장, 투지적합)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 원 (병원, 사옥)
- 차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 14억 원 (병원, 사옥, 전시장)
- 쌍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 25억 (사옥, 전시장, 병원, 도시형)
- 상가건물, 내대지 급구

010-3753-0033